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언제 어디서 샀는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집에도 흰 비닐우산이 서너 개가 된다. 아마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를 만나서 내가 사 들고 온 것들일 게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나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래도 버리긴 아깝다. 비닐우산은 참 불품없는 우산이다. 눈만 흘겨도 금방 부러져 나갈 듯한 살하며, 당장이라도 팔랑거리면서 살을 떠날 듯한 비닐 덮개하며, 한 군데도 탄탄한 데가 없다. 그러나 그런대로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덕(德)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몰라라 할 수만은 없는 우산이기도 하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를 만날 때, 가난한 주머니로 손쉽게 사 쓸 수 있는 우산은 이것밖에 없다. 물건에 비해서 값이 싼지 비싼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일곱 백 원으로 비를 안 맞을 수 있다면, 이는 틀림없이 비닐우산의 덕이 아니겠는가?

값이 이렇게 때문에 어디다 놓고 와도 섭섭하지 않은 것이 또한 이 비닐우산이다.

[중략]

고가(高價)의 베 우산을 받고 나온 날은 어디다 그 우산을 놓고 올까 봐 신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하루 종일 썩인 머리로 대포 한잔하는 자리에서까지 우산 간수 때문에 걱정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버리고 와도 꺼름할 게 없는 비닐우산은 그래서 좋은 것이다.

비닐우산을 받고 위를 쳐다보면, 우산 위로 떨어져 흐르는 물방울이 보인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내는 그 환한 음향도 들을 만한 것이다. 투명한 비닐 덮개 위로 흐르는 물방울의 그 맑고 명랑함, 묘한 리듬을 만들어 내는 빗소리의 그 상쾌함, 단돈 백 원으로 사기에는 너무 미안한 예술이다.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비닐우산은 훌쩍 뒤집히기도 한다. 그것을 바로잡는 한동안, 비록 옷은 다소의 비를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즐거운 짜증을 체험할 수 있고, 또 행인들에게 가벼우나마 한때의 밝은 미소를 선사할 수 있어서 좋다. 그날이 그날인 듯,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우리의 재미없는 생활 속에, 그것은 마치 반 박자짜리 침표처럼 싱그러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중략]

비닐우산은 참 불품없는 우산이다. 한 군데도 탄탄한 데가 없다. 그러나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효용성이 있음으로 하여 두고두고 보고 싶은 우산이다. 그리고 값싼 인생을 살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질 듯한 부실한 사람, 그런 몸으로나마 아이들의 머리 위에 내리는 찬비를 가려 주려고 버둥대는 삶. 비닐우산은 어찌면 나와 비슷한 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서, 때때로 혼자 받고 비 오는 길을 쓸쓸히 걷는 우산이기도 하다.

— 정진권, 〈비닐우산〉

(나)

[전략: 글쓴이는 땀감으로 쓰려고 창고에 방치해 두었던 버려진 버드나무 토막에서 싹이 돋은 것을 보며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낀다.]

아파트 단지든 길거리에서든 눈에 띄는 대로 주워오는 것은 잘린 버드나무뿐이 아니다. 버린 침대 밑 바닥의 널조각도 외면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개중에는 향이 진동하는 질 좋은 나무도 있다. 깨끗한 자개상도 벌써 다섯 개나 모아뒀다. 큰 밥상도 있고, 개다리소반도 있다. 멀쩡한 책상은 왜 그리도 자주 버리는지 알 수 없다. 선반이나 책장, 고가의 장식장도 적잖다. 튼튼한 의자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버리는

이유야 소상하게 알 수 없지만 흠집이 났다고, 유행에 뒤떨어졌다고, 산 지 오래 되어 싫증이 났거나 촌스럽다고 생각해 버리는 모양이다. 버리는 일에 도무지 주저가 없어 보인다. 버려진 물건들의 번듯함과 엄청난 양을 생각하면 몹시 우울해진다.

망치를 들고, 때로는 드릴을 들고 폐기물 수거하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물건들을 해체한다. 수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번듯한 물건이라도 가차 없이 쇠지렛대로 요절내고 해머로 박살을 내서 신속하게 부피를 줄인 뒤, 차에 싣는다. 차에 실리는 순간 그것들은 ‘되살려 쓸 여지가 있는 자원’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물건들이 시골의 앞마당에 자꾸 쌓이자 내 작업도 톱과 망치, 드라이버만으로 부족해 제대로 된 공구들이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다. 잘라 낸 송판과 대패질을 새로 한 각목들이 설계대로 조립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누더기 탁자가 탄생한다. 잠깐 똑딱거리면 의자도 생긴다. 널찍한 개집도 만들었다. 균형을 맞추느라 자꾸 텃대다 보니 내 작품들은 좀 무거운 게 흠이다. 그렇지만 내 조악한 목공 작품들을 친구들은 아주 좋아한다. 나는 주워 온 나무들로 뭐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행복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사람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도시로 몰리고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뭐든 쉽게 사들이면서 타고난 손의 기능은 퇴화하기 시작했다. 사소한 것들을 손수 만드는, 바꿀 수 없는 기쁨도 사라져버렸다.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일보다는 새것을 사는 게 더 멋진 삶이라고 광고는 설 새 없이 부추겼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쉽게 굴복했다. 유한한 자연 자원과 그것들이 사람한테 오기까지 걸린 시간에 모두들 무감각해져 버렸다. 이런 무신경과 난폭한 낭비는 정말 별 받을 짓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고작 태우거나 묻어 버리는데, 묻어도 능사가 아니지만 태우면 더욱이나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 이른바, ‘불필요한 생산’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불필요한 생산이라도 돈이 된다면 추호의 망설임도 없다. 이렇게 과감한 소비 생활은 외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과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어찌 생각하면, 모두들 허무주의자들 같기도 하다.

“지구라는 우주선에는 승객은 없다. 모두 승무원일 뿐이다.”라고 말한 이는 맥루한이었다. 이 행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커녕, 시방 우리는 오만한 승객인 양 착각의 삶을 살고 있다. 물에 담가 둔 버드나무 토막을 보고 사람들이 “어쩌면 살겠네!”라고 한마디씩 건넨다. 나무는 아마 자신을 두고 한 소리라 알아듣지 않겠나 싶다. 살든 못 살든, 물이 좀 올랐다 싶으면 대문 옆에 심을 생각이다.

— 최성각,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

(다)

어제 입었던 옷이 오늘 입은 옷에 밀려나고, 오늘 입은 옷은 다시 내일 입을 옷에 밀려난다. 우리가 유행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연속된 과정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거의 매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광고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을 따르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새 옷을 입는 즐거움도 잠시, 유행은 어느새 바뀌고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 버려진다.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다섯 배나 더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게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점점 내려가는 옷 가격이다. A 기업이 청바지 한 벌을 5만 원에 시장에 내놓았는데, B 기업이 같은 품질의 청바지를 4만 5천 원에 판다면 소비자는 A 기업보다는 B 기업의 청바지를 살 것이다. 의류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가격이 싼데도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옷을 만들어 가게에 전시하기까지는 6개월 가량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몇몇 의류 업체는 그 기간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 제작 기간을 줄이고, 가능한 온갖 운송 방법을 사용하여 운송 시간도 단축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단 2주 만에 제품을 생산해서 매장에 선보이는 의류 업체까지 등장하였다.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파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이 전략을 선택한 많은 의류 업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놀랄 만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열렬한 호응이다.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소비자는 이러한 옷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 의류 업체도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반가워만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 이민정,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문제 1-1]

제시문 (가)와 (나)는 올바른 소비에 관하여 교훈을 준다.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여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0점)

[문제 1-2]

제시문 (다)는 옷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다룬다. 제시문 (다)의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제시문 (가) 또는 (나)를 활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800(±200)자로 할 것. (30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검사는 살인사건 현장에서 두 용의자를 공범으로 체포했다. 검사가 이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백이 필요하나 두 용의자가 서로 협력해서 함구하면 이들은 살인죄를 피할 수 있다. 검사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갑과 을이라 불리는 두 용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친구를 배신하고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범인은 석방되나 자백하지 않은 범인은 10년형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자백하면 각각 5년형을 받는다. 검사가 갑과 을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 데 실패하면, 이들은 모두 1년형만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만약 을이 자백을 했는데 자신만 함구하면 10년형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갑은 함구하는 것보다 자백하는 것이 더 낫다. 즉 을이 갑을 배신했을 경우, 갑은 친구를 배신하는 것을 선호한다. 만약 을이 함구했을 때, 갑이 자백하면 자신은 석방될 것이다. 따라서 갑은 함구하는 것보다 자백하는 것이 더 낫다. 즉 을이 협력한다고 해도 갑은 친구를 배신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갑과 을의 자백과 함구에 대한 선호는 서로 같으므로, 이들은 같은 선택을 한다.

(나)

두 사냥꾼이 사냥을 나섰다. 이들이 협력하면 사슴을 잡을 수 있지만, 토끼를 잡는 데에는 한 명의 사냥꾼만으로 충분하다. 두 사냥꾼이 각각 토끼를 잡았을 때 얻는 이익보다 둘이 사슴을 잡았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상대가 사슴을 쫓으면 나도 사슴 쫓는 것이 낫다. 즉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는 것을 선호한다.

사냥꾼 갑과 을이 함께 사슴을 잡기로 약속하고 사슴을 쫓고 있는데, 그 옆으로 토끼들이 지나간다. 두 사냥꾼은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토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토끼를 쫓을 수 있다. 두 사냥꾼 중 한 명이 토끼를 쫓으면 토끼를 쫓는 사냥꾼은 토끼를 잡을 수 있으나 사슴을 계속 쫓는 사냥꾼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가 토끼를 쫓으면 나도 토끼를 쫓는 것이 낫다. 즉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

한국의 학부모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교육이다. 다른 아이는 사교육을 받는데 내 아이만 사교육을 안 시키면 내 아이만 뒤처진다. 따라서 다른 학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면 나도 내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모든 학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면 누구도 앞서가기 어렵고 아이들은 경쟁에 시달린다. 다른 학부모가 사교육을 안 시킬 때 내 아이에게도 사교육을 안 시키면 누구도 앞서가지 않으며 내 아이는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학부모가 사교육을 안 시킬 때 내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면 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앞서간다. 따라서 다른 학부모가 사교육을 안 시켜도 나는 내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을 선택한다.



(라)

남이 사교육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시키지만 남이 사교육을 안 시킨다면 나도 안 시키겠다고 마음을 먹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학부모가 사교육을 안 시키면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이 사교육을 안 시킨다면 나도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사교육을 안 시킨다. 그러나 남이 사교육을 시키는데 나만 안 시키면 내 아이가 뒤처진다. 따라서 남이 사교육을 시키면 나도 사교육을 시키는 것을 선택한다.

[문제 2-1]

(가)와 (나)는 모두 상대와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배신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① (가)와 (나)의 상황에서 상대의 선택에 따라 죄수와 사냥꾼은 협력과 배신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 답하시오. ② (가)와 (나)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예측하시오. ③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죄수와 사냥꾼의 협력과 배신에 대한 선호의 차이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2]

① (다)와 (라)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예측하시오. ② (다)와 (라)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가)와 (나)의 죄수와 사냥꾼의 협력과 배신에 대한 선호의 차이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